

## 北韓의 衣類産業과 衣生活文化 研究<sup>+</sup>

曹 圭 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sup>+</sup>

Kyu Hwa Cho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lothing habits and the apparel industry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study, literary data, reports, periodicals, interviews and internet data of the two Koreas were reviewed. North Korean clothing habits used to be monotonous and uniform but nowadays people's clothes have become somewhat brighter in color and more diverse in design than before. In particular, liberal and individual dressing habits appeared among the privileged classes. When taking part in national events, women have to wear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while men wear business suits for formal wear. In general, men don't wear Hanbok. Students have to be in uniforms but blue jeans, T-shirts with English logos were popular among them reflecting their sensitivity and openness towards western cultures. The brides usually wear pink Hanboks and the bridegrooms wear black business suits for their wedding. North Koreans also wear Hanbok on national holidays like South Koreans.

Cloth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trade of process commis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rading items are mid to low end men's clothing for the most part due to less emphasis on fashion in the North. The processing is indirect trade and composed of sample making and contracting, sending out materials and production, carrying in goods and setting accounts. To activate South-North trad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tabilization of shipping, reducing high costs of distribution, building direct communication system by setting up office in a neutral zone and simplifying procedures in applying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Fund. On the other hand,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s carried on at art colleges, light industries colleges and commercial colleges in Pyongyang. Clothing institutes which study Hanbok and Western clothes, are installed in each city and province. Graduates who majored in clothing and textiles are posted in institutes or apparel factories. Their job is designing, patternmaking and sewing for their customers. Most of them are women and in good state of economic conditions.

The North Korean clothing industry has been the core national industry that has developed based on overseas demand from the mid 1980s. The standard is that of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In 1999, trade of North Korean textile products with trade counterparts such as Japan and China was \$1.3 million in

<sup>+</sup>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ports and \$1.27 in imports. Of this amount the export takes up 25.4% of the total exports in North Korea.

However, fundamentally even in sectors that are irrelevant to politics such as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trus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a prerequisite. Only through this can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 towards the reunification.

## I. 서론

21세기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시대이다.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 동북아 지역의 신질서 형성에 관건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2000년 6월 13일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과 6월 15일 공동 선언문 발표 그리고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 관광특구 개방 등 일련의 북한 개방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1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양에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의 설립에 합의<sup>1)</sup>, 실무대표단이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교육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또한 패션디자이너 이영희씨가 지난 2001년 6월 2~9일 평양에서 한복 패션쇼<sup>2)</sup>인 ‘조선옷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패션쇼는 북한에서 열리는 남한 디자이너의 첫 번째 패션쇼로서 향후 패션 의류업계의 남북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의생활 문화와 의류교육 현황 및 의류산업에 관한 연구로 통일 한국시대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그 준비의 일환으로 북한 의생활 문화의 파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이미 『통일을 대비한 연변 조선족 가정생활 기초조사』<sup>3)</sup>에서 의류를 다룬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생산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북한과의 의류산업 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디자인, 기술력, 마케팅 능력을 접목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섬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장차 서울을 동북아 패션의 거점으로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문, 잡지 TV 등 매스

컴 자료와 일본 의류관련 문헌과 국가기관 조사 보고서, 민간기업의 경제 연구원 등의 남북경협 정보와 북한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정원에 의뢰하여 소개받은 탈북인들과 대북 의류위탁가공 관련자들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기업이나 개인,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그밖에 일본의 거류민단, 경제연구소, JETRO 등에 문의하였으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 II. 북한의 의생활문화

### 1. 북한의 의생활문화 변천

북한 주민의 의생활은 중앙계획에 의해 복지 및 의류의 생산량, 종류, 질이 결정되고, 주민의 신분제에 따라 질과 양이 차등으로 이루어지는 배급제(구매기회부여)로 인해 단순화, 규격화되어 버렸다. 이 배급제도 1990년대 중반 경제상황 악화로 중단되어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장마당에서 국정가격의 몇 배 가격을 주고 의류를 구입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당, 정간부 및 복송 교포 등 부유층은 외화 상점에서 외화를 주고 의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의생활 변화는 1970-1980년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 국제적인 행사 개최에 따른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의복에 대한 개방 정책과 캠페인,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서구 문물을 접하는 특권층들이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 유행을 선도함으로써 나타났다.

1950, 60년대는 6.25동란 이후 전후복구기로 남성은 노동복이나 카키색의 인민복을, 여성은 검정치마·흰저고리의 무명한복과 몸배 등을 착용하였다. 1959년부

터 시작된 재일동포 복송사업에 따른 영향으로 고위 간부계층의 남성은 모직,혼방의 인민복이나 신사복을, 상류층 여성들은 광목과 인견사로 만든 한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의 남성은 인민복에 레닌 모자를 쓴 모택동복, 여성은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9년 4월 김일성의 '유색복장' 지시에 따라 대도시 주민들이 다양한 색상의 양장을 하기 시작, 남성은 모직,혼방, 테트론 등의 인민복이나 양복을 착용하고, 여성은 한복과 양장을 혼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양장과 신사복이 보편화되는 시기로, 1980년 9월 평양여성들은 외출할 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착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1982년 4월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패인 옷을 입고 대담한 노출을 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여성복의 노출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1984년 2월 대도시 남성들의 행사동원시 양복과 넥타이 차림이 의무화되었다. 1986년 2월 김정일이 여성들의 바지착용과 국방색, 검정색 의복착용을 금지하였고, 대도시 여성들도 행사동원시 한복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일상생활에는 양장이 보편화되었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전후하여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북한당국이 올바른 옷차림 계몽에 힘써 주민들은 의류부족상황에서도 패션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90년대는 해외유학,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고위간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본, 홍콩, 서구유행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쫄바지, 각종 영문자와 그림프린트, 치마바지, 미니스커트 등이 유행하여 당국이 단속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의류정책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 변천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① 1950-1960년대: 인민복·한복 착용기, ② 1970년대: 인민복·양복 혼용기, ③ 1980년대: 양복 정착기, ④ 1990년대: 패션 등장기로 구분된다.

## 2. 북한의 의생활문화 현황

북한주민들은 국가의 공식 행사에 동원될 때 여성은 한복 일명 조선옷<sup>4)</sup>, 남성은 신사복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모두 양복(여성의 양장을 포함)을 착용하고 있다. 북한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하고 한복을 입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이후 의류배급이 중단되고 의류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재봉기<sup>5)</sup>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기존의 의복을 수선하거나 옷감을 구입하여 외출복과 속내의 등 웬만한 옷은 손수 만들어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특권 주민들, 특히 당 간부, 복송교포, 해외무역종사자 등 부유층들은 의류배급에 있어서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외화상점에서 수입산 옷감을 구입, 맞추거나 직접 해외에서 기성복, 장신구 등을 구입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있는 가족, 친척을 통해 일본과 남한에서 유행되는 패션이 복송교포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부유층에 급속히 전파된다. 북한의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평양시 창광거리<sup>6)</sup>, 천리마거리 등 중구역 일대는 북한의 로데오 거리로서 북한 최신유행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1) 여성의 의생활-양장과 한복의 혼용

북한의 여성들은 외출시 비교적 다양한 디자인과 밝은 색상의 원피스, 투피스, 블라우스, 스웨터 등의 양장을 착용하며,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나 국가적 행사, 명절에는 예복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그림 1, 2, 3, 4, 5).

북한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대체로 무릎 위를 올라가지 않으며, 미니 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 품행이 단정치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sup>7)</sup>.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민소매, 목선이 파인 옷 등 이전에 비해 노출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은 몸매가 살아난다며 굽 높은 구두를 선호하며, 목걸이와 귀고리, 패션벨트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여성도 있는 것<sup>8)</sup>으로 나타났다. 노년 여성층은 점잖은 색의 의상을 주로 입으며, 화려한 색을 입으면 주위로부터 노망들었다는 핀잔을 받는다고 한다<sup>9)</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젊은수록 밝고 무늬가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나이가 많을수록 점잖은 단색이나 단순한 무늬의 의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표 1> 북한의 의생활 변천

시대구분	특 징	의 생 활
1950-1960년대	인민복, 한복 착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 작업복이나 카키색의 인민복.</li> <li>여성: 검정치마, 흰 저고리의 무명한복, 뽕배.</li> <li>재일동포 북송사업 영향으로 고위간부계층의 남성은 인민복이나 신사복(훈방, 모직), 상류층 여성은 광목과 인견사로 만든 한복 착용 시작.</li> </ul>
1970년대	인민복, 양복 혼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 레닌 모자에 인민복(모택동복).</li> <li>78. 10. 평양에서 처음으로 「옷전시회」(패션쇼)가 열림.</li> <li>79. 4. 김일성의 「유색복장」 교시에 따라 대도시 주민들의 양장 시작. 남성: 인민복, 양복(모직, 훈방, 테트론류), 여성: 한복, 양장 혼용.</li> <li>다양한 형태, 화려한 색상, 문양의 의복 등장 시작.</li> </ul>
1980년대	양복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 9. 평양시민 외출시 화장, 화려한 옷착용 지시.</li> <li>82. 4. 김일성 여성복 노출허용 언급.</li> <li>84. 2. 김정일 고급옷감 생산 지시와 5월 김일성 동구권 방문 후 중요행사 참가시 남성의 양복과 넥타이 차림 의무화. 대도시 남성 올백 머리 스타일.</li> <li>84. 9. 합영법* 발표.</li> <li>86. 2. 김정일 여성 바지착용과 국방색, 검정색 착용 금지.</li> <li>88. 2. 의류,니트,신발제품과 패턴이 전시된 경공업 전시관 개설.</li> <li>89.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로 단정한 옷차림, 머리형태 캠페인.</li> <li>여성: 행사복에 한복착용 정착. 양장의 일상화.</li> <li>여성의 소매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파진 옷 소개.</li> <li>당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가 많이 게재되기 시작.</li> </ul>
1990년대	패션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 여름 반팔 티셔츠, 반바지 선보임.</li> <li>92 강원도 원산에서 패션디자인 공모전 개최, 기본적인 의상의 재단본을 수록한 패션화보 「옷차림」 출간.</li> <li>「평양피복연구소」 주관아래 “춘추의류전시회”, “평양시 옷전시회” 정기적 개최.</li> <li>「천리마」, 「노동청년」 등 각종 출판물을 통해 성별, 연령별, 계층별 옷차림도안과 제작 방법 등 소개 - 의상의 미적 감각 부각.</li> <li>대학생들 젊은층 중심 청바지, 쫄바지, 각종 영문자와 그림, 치마바지, 미니스커트 등 서구 패션 일부 유입.</li> <li>94. 6. 조선 중앙TV를 통해 조선옷 품평회 방영.</li> <li>당기관지와 매체에 헤어 스타일, 화장법 등에 관한 기사 게재.</li> </ul>

주 : 합영법은 1984년 외국인의 북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제로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 서방국가의 투자를 끌어오는 데는 실패함.

일부 개성을 추구하는 부유층 여성들은 ‘그 누구도 입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패션’을 추구하면서 외화상점이 아닌 외국에 나가는 기회에 옷을 구입하기도 한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만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의류가 북한 각지의 외화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최근 북한 패션의 변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북한 대도시의 일부계층에서 다양한 패션

이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이후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옷차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부분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주민들의 복식에 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도시 여성들이 국가적 명절이나 공식 행사에 참여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는 한복은 행사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식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무늬와 소재로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속살이 비치는 시스루(see through) 효과, 부분적인 자수 장식, 강렬한 보색대비, A라인으로 퍼지는 긴치마의 실루엣 등이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고 있다(그림 9, 12). 한복감은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문양을 넣어 짙은 양단, 공단, 명주(뉴똥), 벨벳이나 벨벳틴으로 만들며, 일반주민들은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한복

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에는 견모시, 무늬를 넣은 망사나 레이스가 한복감으로 쓰인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권장하는 멋내기에는 양장, 한복 모두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강조한 고전적인 스타일이며, 특히 색상의 다양화를 강조함으로써 의복의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복의 다양화, 패션화 추세는 옷감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복보다 양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2) 남성의 의생활 - 평상복과 예복에 양복

북한의 남성들은 평상시에는 작업복이나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티셔츠, 바지, 점퍼, 스웨터를 입으며, 공식적인 국가행사에 동원될 때 정장으로 신사복, 넥타이



<그림 1> 평양시민들의 원피스, 투피스차림.  
출처: nk.joins.com



<그림 2> 북한 여성들의 블라우스·셔츠·치마와 남성들의 폴로 티셔츠·셔츠·바지. 출처: nk.joins.com



<그림 3> 공업품 상점 점원의 한복 차림과 주민들의 양장차림.  
출처: nk.joins.com



<그림 4> 북한 농장원들의 몸빼 바지·점퍼·티셔츠·바지 차림.  
출처: nk.joins.com



〈그림 5〉 여성용 니트  
출처: www.kotra.or.kr



〈그림 6〉 남성정장  
출처: www.dprk.com



〈그림 7〉 남성캐주얼차림.  
출처: www.dprk.com



〈그림 8〉 인민 학교 학생 흰블라우스, 빨간넥타이, 검색치마·바지 교복.  
출처: nk.joins.com

차림이 일반적이다(그림 2, 4, 6, 7). 젊은 남성들은 검정, 검색을 선호하고, 노년층은 회색 양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들 사이에 김정일 위원장이 착용했던 선글라스, 고가의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독특한 문양과 색상의 티셔츠 등 유행품목이 있다.

한편 '공산권 국가의 정장'으로 통하는 인민복은 북한에서 예복과 평상복으로 동시에 착용되고 있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입고 나와 남한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소위 '담긴옷'으로 불리며, 목부분부터 단추로 여미게 되어있는 북한식 양복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남성들이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 북한최고의 패션리더인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적인 정장이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 들어 TV 방송 및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신문, 대중 교양지 『천리마』 등을 통해 계절별 남성들의 옷차림의 경우, 봄철에는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갖춘 「제끼긴 형태」의 양복정장을 권장하면서 와이셔츠도 흰색, 하늘색, 살색, 연한 밤색 등 비교적 밝은 색상을 추천하였다. 와이셔츠만 입는 경

우 가급적 넥타이를 맬 것과, 소매는 단정하게 걷어올리고 셔츠자락은 반드시 바지 속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다. 간이복으로는 뜨개옷(니트 웨어) 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3) 북한 학생의 의생활

북한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검색 교복을 항상 착용, 규율에 맞춰 엄격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교복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2년에 1번 정도 김일성, 김정일의 선물형식으로 무상 지급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상 공급되고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여학생들은 무릎길이의 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빨간 넥타이<sup>1)</sup>를 두르고, 남학생들은 검색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역시 빨간 넥타이를 두른다. 붉은 넥타이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인민학교 2학년(만 7세)이 되면 가입하는 소년단원임을 상징하는 것이다(그림 8).

대학생의 경우 검색 양복 정장을 염가로 배급받는다. 남학생들은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고 모자를 쓰고, 학교마크와 김부자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한다. 특히 평



<그림 9> 여성 접대원들의 무늬가 직조된 망사 소재의 한복 차림. 출처: nk.joins.com



<그림 10> 평양의 결혼식 야외 촬영. 분홍색 한복, 화관을 쓰고 흰 장갑, 꽃다발을 든 신부, 양복차림의 신랑. 출처: nk.chosun.com



<그림 11> 설날 옷놀이. 꽃무늬 벨벳 한복과 색동 한복. 출처: nk.joins.com



<그림 12> 조선옷 품평회 모습. 출처: nk.joins.com

상시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매도록 되어있어 넥타이를 맨 사람은 '인텔리' 라는 인식이 있다. 여대생들은 국가에서 양복과 한복, 두 벌의 교복을 지급하며 행사가 있을 때는 한복을 입는다고 한다. 졸업식 때는 졸업용 가운을 따로 입지 않는다<sup>12)</sup>.

그러나 엄격한 교복착용과 단체생활에도 불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 사이에서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후 바지 아래 쪽 폭이 넓은 나팔바지가 유행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청바지와 쫄바지, 치마바지, 영문이 인쇄된 티셔츠, 미니스커트<sup>13)</sup>와 함께 장발, 선글라스, 아디다스 운동복(추리닝) 등이 유행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허벅지 뒷부분이 풍성한 디스코 바지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유행현상에 대해 북한은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에 청소년들이 물들 것을 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에 주력하고 있다<sup>14)</sup>. 즉 이들의 복식을 단지 시대적 유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사상문제와 연관시켜 서방 자유세계의 문물이 북한사회로 유입되고 청소년들의 사상이완을 야기 시킴으로써 장차 체제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 4) 가정의례와 의생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미명아래 전통적 관혼상제의 생활풍습을 '봉건적 반동행태'로 배격, 물리적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주의적으로 변형시켜왔다. 특히 김일성 생일(2월 16일)이 있는 2월부터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 있는 4월까지

3개월 동안은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 기간에 사사로운 축하행사를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다.”라 하여 결혼식, 회갑연 등 가정대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sup>15)</sup>

북한 주민들은 민속명절이나 혼상제 등 사적인 생활영역 속에서는 개인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복을 착용한다. 그러나 결혼식의 경우 신랑예복은 양복, 신부예복은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그림 10). 즉 결혼식 날 신부는 꽃분홍 색의 상하를 통일한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은박 꽃무늬 장식을 하기도 한다. 신부는 머리에 흰 월계관을 쓰고, 흰 장갑을 끼고 꽃다발을 든다. 신랑은 검정 양복정장을 하고, 가슴에 꽃을 꽂는다. 신부 한복의 치마길이는 1960-70년대 말까지는 종아리 길이였으나 1970년대 말 이후 긴 A라인 치마로 변화되었다.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 2』<sup>16)</sup>에 의하면, 새색시의 조선옷 치마는 코신이 보일락말락하게 입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옷감은 북한 최고의 견직물 생산지인 평북 영변의 견직공장에서 생산된 고급견직물인 다색단이 가을철 결혼예복 한복감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sup>17)</sup>.

어린이들은 색동한복을 입고 탁아소에서 공동으로 돌잔치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8)</sup>. 간소화된 장례에서 수의는 대개 광목을 쓰고, 일부 고위층이나 부유층은 전통적으로 써온 삼베를 입기도 한다. 상주는 굴건 제복을 하지 않고, 평상복에 검은 완장을 두르며,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단다<sup>19)</sup>.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 2』<sup>20)</sup>에 의하면 조객들은 어두운 색이나 수수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어 남한과 별 차이가 없다. 탈북자 면담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검정이나 흰 옷 착용을 강요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은 양력설을 설로 인정, 개인 형편에 따라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차례를 지내며 가족, 이웃들과 웃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림 11). 북한의 국가적 명절<sup>21)</sup>인 김일성 생일(4월 15일), 정권창건일(9월 9일), 노동당창건 기념일(10월 10일) 등에 열리는 군중무도회에서 평양시민들은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한복을 입으며, 간혹 젊은 여성들이 원피스, 투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5) 화장과 미용문화

### (1) 화장실태

북한의 여성들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식생활 문제 해결이 어려워 일반 여성들의 화장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4계절의 구분 없이 로션 정도를 바르고 있다.

북한의 일반 여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6-20세 경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나, 아주 연하게 하는 편이다. 살결물(스킨로션)을 바르고 얇은 입술 화장에 눈썹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남성들도 연하게 화장한 여성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탈북자 면담에 의하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여성들은 미혼이었을 때는 화장을 연하게 하다가도 결혼 후에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직장여성의 경우 결혼후에도 화장을 하고 다니며, 노인들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은 1987년 일본과 합작 ‘너와나 미용연구회’를 설립하고, 평양 화장품공장, 신의주 화장품공장 등에서 살결물(스킨로션), 울크림(로션), 분, 분크림(화운데이션), 연지, 눈썹연필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초화장품이나 메이크업 제품 중심이고 색조화장품의 생산·유통은 제한되어 있다<sup>22)</sup>. 아이샤도나 마스크라와 같은 것은 중국제나 일본제 같은 외제뿐이어서 일반여성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장마당 등에서 중국제품을, 부유층 여성들은 외화상점의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외제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으며, 프랑스·일제 화장품은 여유 있는 계층의 결혼예물 품목으로 선호된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은 남한 여성들만큼 색조화장 등 화장기법이 다양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짙은 눈썹, 자연스러운 눈과 입술 화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이·미용 실태

각 시, 군 「편의봉사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이발소와 미용원이 동, 리마다 1개소씩 있고 이발소와 미용원마다 3-4명의 이발사와 미용사가 배치되어 있다.

성인남성은 대체로 2개월에 한번씩 이발을 하며,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집에서 가족들이 머리를 잘라주거나 장마당에서 개인 영업을 하는 이발사(이발료



: 50-70전)에게 머리를 깎는다. 북한 당국은 각종 기관지 등 선전매체 등을 통해 「정서와 체질에 맞도록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고 나아가 얼굴형, 체격, 나이, 직업, 계절 등에도 어울리는」 이른바 「사회주의적」인 스타일을 권장하며, 머리 깎을 때 얼굴이 계란모양이 되도록 추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얼굴형에 따른 조발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갈매기머리, 패기머리, 구름머리, 송이 머리 등이 유행하였으며 이외에도 남성들의 이발형태는 약 25가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여성들은 미혼일 때는 머리를 길게 길러 묶는 등 단정하게 손질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긴 머리로 짧게 잘라 파마를 한다. 일반 여성들은 평균 6개월에 1번씩 미용실에서 커트(3원)와 파마(5원)를 하거나 장마당에서 파는 파마약을 구입해 집에서 이웃 여성들과 서로 파마를 해주고 있다. 일반가정에서는 송진을 이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송진무스」를 사용한다. 북한당국에서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나리꽃머리, 폭포머리, 단발머리를, 겨울철에는 옥류머리, 수국화머리, 들국화머리, 조발머리 등을 권장하고 있다.

탈북자 면담결과 머리염색은 서구의 퇴폐적인 잔재라며 젊은 층에서 머리 염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서구 유행의 영향을 받아 머리 염색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 영화배우들을 본뜬 헤어스타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노년층은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 최고의 미용실은 전문 미용사 50여명이 모여있는 평양의 ‘창광원’ 미용실로 주 이용고객은 중앙방송의 아나운서들과 당관부들이다.

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있어 온 쌍꺼풀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얀 피부, 가름한 계란형의 얼굴에 신장은 약 160cm이상이며, 약간 크고 쌍꺼풀이 없는 눈, 볼록한 코, 통통한 몸매가 북한 미인의 조건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영화제를 계기로 잘 알려진 영화 ‘도라지 꽃’의 여주인공 오미란을 꼽을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최근 쌍꺼풀이 진 큰 눈의 여성 모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미인의 기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표 2〉 남북 의생활 용어 비교

한국어	북한어	한국어	북한어
가발	덧머리	샌들	싼다루
각선미	다리매	선글라스	색안경
귀고리	귀에고리	수자조직	뽀짜임
기성복	지은옷	스웨터	세타
나일론	나이론	스커트	양복치마
남방	남방샤쯔, 노타이샤쯔	스타킹	긴양말, 양말바지, 스토킹
내습성	누기견딜성	슬리퍼	꼴신
넥타이	*넥타이(소년단 넥타이) 이외 줄임말, 남성용	여아원피스	나리옷
넥타이핀	넥타이꽃개	와이셔츠	와이샤쯔
니트	뜨개, 뜨개전, 뜨개옷, 메리아스	외출복	갈음옷, 나들이옷
디플 브레스트 재킷	겹셔양복	외투, 코트	오바, 외투
드라이크리닝	화학빨래	벨벳	우단, 면비로도
드레이프성	드림성	운동복	단복, 추리닝
러닝셔츠	스프링, 런닝샤쯔	원피스	달린옷
레이스	그물단	장식	치레
리본	리봉, 땡기	재킷	양복저고리
립스틱	입술연지	잠퍼	잠바
마스카라	눈섭먹	조각보	쪽무이 보자기
망토	날개옷	질은화장	진단장
멋부리다	멋피우다	짧은치마	동강치마
멜빵	멜끈, 멜빵	칼라(collar)	카라, 턱고리, 축목턱, 깃
모자이크	쪽무이 그림	코듀로이	골덴
모직	털실천	코르셋	몸매띠
모피	털가죽	콤팩트	분첩갑
목도리	마후라	탈색	색날기, 색빼기
미안수	살결물	투피스	나뉘옷
반박음질	반땡침	티셔츠	티샤쯔
방수(방수가공)	물막이(물막이가공)	파운데이션	보정속옷
베레모	둥글모자	팔찌	팔목걸이, 팔가락지, 팔찌
벨벳	비로도	패션	옷차림, 복장
벨트버클	띠고리	패션디자이너	피복 설계사
복대, 복띠	배띠	패션벨트	허리띠
부츠	장화, 목구두, 목달이구두	퍼머, 파마	파마, 파마먼트
브라	가슴띠	포켓	포켓, 호주머니
브이넥	세모고대	핸드백	멜가방, 손가방
블라우스	양복적삼		

약간 통통한 체형의 여성을 선호<sup>24)</su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결혼 후 생계를 위해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많은 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북한 가정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여성은 육아와 가정 살림 외에도 가정경제를 위하여 장사 등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체력이 튼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 3. 남북한 의생활 용어 비교

〈표 2〉는 본 연구자가 탈북자 면담과 조선말 대사전<sup>25)</sup> 그리고 북한관련 웹사이트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남북한의 의생활 용어 비교표이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이후 의류위탁가공을 통한 의류완제품 수출의 주요 상대국이 일본<sup>26)</sup>이기 때문에 '스웨터'를 일본식 발음인 '세타', '목도리'를 '마후리', '코듀로이'를 '골덴'이라고 부르는 등 디자인과 봉제에 있어 외국어의 일본식 발음이나 일본어가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북한 의류산업의 현황과 남북경제협력

### 1. 북한 의류산업의 현황

북한의 의류산업은 국가의 핵심산업이자 대외무역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주종이며, 의류 제품은 북한 최대 수출품목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1) 북한 의류산업의 성장과정

196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북한 의류 산업의 성장은 전적으로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 정책은 한국전 이후 1970년대까지 중공업과 군수품 생산에만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경공업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특히 의류 제품의 경우 시, 도, 군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급자족토록 되어 있어 생산기술과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종류와 품질도 단순, 조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공업의 낙후성이 심화되자 북한은 1984년에 추진된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과 '경공업혁명' 등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해 10월 합영법 제정 이후 조총련계 일본기업과의 합영·합작 사업으로 의류합작기업이 설립되면서 봉제의류위탁가공부문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의류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남한 및 외국기업과의 위탁가공업과 설비유입이 증대하면서 자체 의류생산기술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의류산업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다.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의류제품은 거의 전량이 일본, 홍콩, 유럽 등 외국시장으로 수출되었는데, 특히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의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남북교역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한국과의 위탁가공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최근 북한의 의류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 2) 북한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1) 북한 의류산업의 현황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공업 공장의 파괴와 군수 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의류 산업은 경공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경공업에 비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분야이다. 북한의 섬유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한 상태<sup>27)</sup>인데 반해 의류 산업의 기술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의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규모 중앙의류공장들은 평양과 함경남북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재일 조총련계 기업들과의 합영 또는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양시의 선교피복공장, 동대원피복공장, 함흥여자 옷공장과 개성피복공장 등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8)</sup>. 내수용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규모 지방공장의 경우 설비의 노후화,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의류생산량과 생산품목이 많지 않다.

이처럼 조총련계 기업들과 합작으로 일본에서 기술, 설비, 원재료 등을 도입하여 생산되는 수출용 의류와, 80년대 이후 건설된 현대식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한국 제품과 거의 동등한 기술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화학섬유와 방직부문이 남한의 1960년대

말 수준이라면, 의류산업은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되며, 최근 한국, 일본과의 위탁가공 생산을 통해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위탁가공의류의 생산기술수준을 통해본 북한 의류품질의 평가는 <표 3>과 같다.

북한에는 위탁가공, 무역업체 및 공장을 가리키는 의류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지난 1986년 조총련계 모란봉주식회사와 모란봉합영회사를 설립한 은하무역총회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출을 위한 의류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생활에 필요한 내수용 의류생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은하무역총회사는 북한 최대의 섬유전문회사로 1992년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아래 컴퓨터 설계기술 도입 등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산하에 110개 가량의 의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란봉합영회사를 통해 평양 대동강구역과 동대원 구역에 2개의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 회사는 독일, 일본 등 10여 개 국가의 30여 개 업체들로 해외 거래처를 확대해 가면서 의류가공무역의 대외핵심창구로 부상하고 있다<sup>3)</sup>. 기타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는 의

류공장의 경우도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들과의 합영 공장이고 이들 공장은 북한 내 종합상사나 일반 무역회사 산하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북한 의류산업의 문제점

북한 의류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의복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부족하며 품질이 저하되어 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의류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중앙의류공장들은 내수용 의류생산보다 한국과 일본 등지로부터의 위탁가공 수출상품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다.

셋째, 꼼꼼한 솜씨로 의류제품의 일반적인 기술수준은 부족함이 없으나 특수봉제나 특수직물의 의류제품을 위한 설비 및 노하우가 부족하다.

넷째, 외부와의 교류차단으로 국제적인 하이패션에 대한 인식과 구현능력이 부족하여 고유한 디자인 개발과 차별화에 의한 의류의 고부가가치창출이 어렵다. 특히 방직설비 등의 노후화와 제조기술 낙후가 소재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 부문은 향후 남한이 주도적으로 보완해 줘야할 것이다.

<표 3> 북한 위탁가공의류 품질평가

구 분		생산 기술수준의 평가
재단	무늬맞춤	무늬맞춤 방법, 상하좌우 맞추는 방법 등을 이해 하고 있음.
	원단특성에 대한 이해	코듀로이,스판 등 봉제특성이 요구되는 직물은 기술적인 지도가 요구됨.
봉제	전반적인 기능도	일반 기초 봉제의 숙련도는 매우 높음.
	세부부착 방법	각종 디테일의 제작 및 부착방법은 양호한 편임.
	일반봉제	작업복 등 봉제 외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문제가 없으나 진, 코듀로이, 스판 등 특 성 있는 제품에 대한 기능은 미흡함.
	특종봉제*	특종설비 미비로 제품생산에 애로가 있으며 보유 한 특종 설비도 노하우부족, 설비상태 불량 등으로 원하는 수준의 제품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완성	단추달기	일반적으로 양호하나 제품특성에 맞는 방법이 미숙.
	잔사 및 제사처리	비교적 양호.
	다림질	스팀프레스 등 설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나 다림질 상태는 보통 수준.
포장	자재조달	대부분 포장자재 일체를 남한에서 제공.
	원산지표시	MADE IN D.P.R. KOREA로 표시.
봉 제 수 준		남한을 100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80임.

주 : 특종설비는 특수목적용 봉제기계(오버로크, 단추구멍, 쌍침, 상침미싱, 프린트 기계, 워싱 기계 등)를 말함.

참고 : 통일원(1994),「북한물품 품질평가 및 소비자 반응조사」

## 2. 의류산업의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래 남북경제협(남북교역)<sup>31)</sup>은 규모와 질·양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실무회담 등을 통해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등 구체적인 남북경제협약의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북 경제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 테러전 및 남북대화의 소강상태로 인해 비록 2001년 남북교역 거래량이 줄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간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대북경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남북 교역액은 4억2500만 달러로 전년도 3억3천3백만 달러에 비해 27.5% 증가함으로써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남북교역 여건이 1998년에 비해 환율안정, 국내 경기회복 등으로 호전되었고, 비료 등 대북 지원물품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반출이 증가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남북교역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sup>32)</sup>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부터 시작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다. 2000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919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33)</sup>.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섬유산업이 개도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우수한 품질과 노동력을 비교적 적은 생산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북한은 1980년대 일본 등지로부터 섬유기계를 구입,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이루었으나 동구권의 붕괴로 가동율이 20-30%대로 떨어진 북한 봉제공장을 위탁가공제품 생산기지로 활용, 외화획득과 경제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남북간 의류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류 부문의 반출입 가운데

위탁가공교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류산업의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991년 코오롱의 북한진출을 시작으로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제일모직, 서전어패럴, 한일합섬, 이랜드 등의 의류회사가 대북한 의류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대북한 의류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만을 활용하는 단순교역형 위탁가공무역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 11월과 2000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제협활성화 조치로 위탁가공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이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됨으로써 설비제공형 위탁가공무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역초기에는 거래규모도 소량이었고 판매용보다 작업복 등 기업자체 소비용이 많았으나 기대 이상의 품질수준이 확인되면서 국내시판용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측에 지급되는 피스당 기준 금액을 정해 지급되는 가공임의 수준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가의 10-20% 내외이며 신사복, 윈드 재킷 등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이나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경우 수출가의 30-40%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에 비해 품질은 우수한 반면 국내 생산보다 제 경비를 포함해 가격이 평균 20% 정도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는 대기업의 OEM 생산방식에 의해 국내 반입되는 경우와 일본, 유럽 등 제3국 시장진출로 양분되는데 특히 일본과 캐나다로의 수출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 국내 공급처를 두고 전량 반입하는 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의 측면에서 대체로 마진폭은 10~15%정도이다. 북한 내 일본 및 한국과 의류위탁가공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로는 은하무역총회사와 봉화무역총회사가 있다.

의류 위탁가공교역의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남자 재킷이나 남자 바지, 셔츠, 코트 등 남성용 중저가 의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유행에 민감한 여성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진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보고 듣는 것이 제한된 북한의 사회 문화적 여건

상 아직까지 고급 패션에 대한 인식 및 패션디자인, 색채감각이 부족하고, 위탁가공거래의 성격상 해외바이어의 디자인과 작업지시에 복한측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업체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원가절감과 반입시 무관세 혜택이란 유인에 의해 북한과의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기술지도와 작업지시가 매우 제한된 상황이므로, 복잡한 작업 공정이 요구되는 여성의류나 고급의류보다 중저가 남성의류 중심의 위탁가공 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한 의류위탁가공의 거래형태는 85% 이상이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개업체나 현지법인이 원재료를 북한측 수탁자에게 중개하여 공급하고 완제품은 다시 역순으로 국내에 반입된다. 거래절차는 임가공비 결정▶샘플제작과 계약체결▶원부자재 반출과 본작업▶완제품 반입 및 결제 로 요약할 수 있다.

## 2) 의류산업의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남북 간의 의류위탁가공교역의 무관세 혜택, 품질의 안정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와 한국무역협회의 남북위탁가공업체 실태조사 자료, 의류위탁가공업체 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만성적인 전력부족과 통신시설 미비 등의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
- ② 동남아,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탁가공료와 납기 지연
- ③ 인천~남포, 부산~나진간 항로의 불안정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북한의 항만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잦은 선적 및 하역작업 지연
- ④ 클레임 발생시 해결규정 미비
- ⑤ 현지접근불가로 인한 품질과 생산관리의 어려움
- ⑥ 차량의 유류, 타이어 제공, 접대비용, 기술자 방복시 과도한 현지 체제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 ⑦ 남북한의 정치상황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
- ⑧ 남북한간 환거래계약, 청산결제협정 등 직접적인

- 대금결제수단 부재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 ⑨ 업체간 과당경쟁에 대한 자율조정시스템 부재로 인한 위탁가공비의 인상 등의 부작용

## 3. 북한의 의류산업관련 전공교육과 인재육성

경공업분야에 소홀하던 북한도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의복의 색상과 디자인 개발 등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을 연구, 주민계몽을 통한 의생활 다양화와 향상에 노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의류관련 교육은 대학과 같은 일반고등교육기관<sup>39)</sup>과, 의류공장 등의 산업체 내의 성인고등교육기관인 공장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 북한의 의류산업관련 전공교육과 인재육성 현황

현재 북한의 의류관련 전공교육은 단과대학과 특수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대학에는 담당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의류전공 탈북자 면담결과, 남한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피복전문학교가 각 도 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의류전공 대학졸업자들은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각 도내의 피복연구소나 의류공장에 배치되어 의복디자인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작업복 외에 옷감이 배급, 유통되는 현실에서 의류전공은 의류제작을 주문 받아 디자인은 물론 봉제까지 연결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우 선호하는 전공에 해당한다. 북한의 의류전공교육 및 인재육성기관의 교육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양미술대학: 11년제 특수목적의 예체능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은 전문부 3년, 대학 4년 6개월, 박사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개의 학부 중, 산업미술학부에 수예, 방직, 의상미술 등의 전문학과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사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북한의 대표적인 의상디자이너인 리유미<sup>39)</sup>와 같은 의상전공 박사<sup>39)</sup>가 배출되었다.

②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과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일반 고등교육기관 중 특수대학인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는 방직공학부 피복학과에서 재봉, 설계, 섬유공학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년제 장철구

평양상업대학내에도 피복설계과가 개설되어 있어 의상재단에 관한 이론을 배운 후 의류공장에서 직접 실습을 한다. 졸업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옷을 디자인하여 제작,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sup>37)</sup>.

③ 피복전문학교: 피복전문학교 출신 탈북자에 의하면, 피복전문학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도에 하나씩 있다. 피복전문학교의 피복 설계과는 23년제 과정이며,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재단·재봉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④ 공장대학: 산업체 부설형 성인교육기관으로 노동자들이 의류공장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봉제 기술 등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업연한은 5년이며, 졸업 후에는 정규대학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된다.<sup>38)</sup>

이 외에 의무교육기간중인 고등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가사 실습시간에 피복실습이 부과되고 있다<sup>39)</sup>.

## 2) 북한의 의류연구기관

북한은 1988년 평양과 각 시, 도에 피복 연구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의복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피복연구소에서는 양복, 한복의 형태설계·가공공업화계획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sup>40)</sup>. 의류전공 대학 졸업자들이 배치되는 피복연구소는 1년에 1-2번 피복설계(디자인)개발을 수행하여 기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 면담결과 알려졌다. 각 지역의 피복연구소에서 디자인한 의복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의복 전시회에 출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피복연구소 외에 북한의 의류관련문헌 분석 결과 평양시 피복공업총국 피복기술 준비소, 조선민속박물관 등에서 의류 관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관련 기사에 자주 소개되는 평양의 피복연구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의류디자인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패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시의 피복연구소는 북한 패션의 발신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복과 양복디자인을 함께 연구 개발하고, 의복형태연구, 설계, 가공·공업화 계획을 담당하며, 특히 연구소 주관 아래 각종 전시회 개최와 우수제품의

선정, 생활디자인 전문책자의 발간을 주도하고 있다. 1986년 중반 북한의 의류변화 경향이나 연구를 알게 해주는 취재기<sup>41)</sup>를 통하여 피복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복식유행을 미리 예측, 제안하는 명실공히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원들은 6개월 전에 디자인을 결정하고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어 유행할 것인가를 인민들 속에서 조사하여 다음 시즌을 위한 의류디자인 연구를 하고있다. 또한 의복의 색상표본을 만들어 조사하는 등 색상과 의복의 칼라(collar), 길이 등의 변화나 경향에 대해 연구하며, 착용자는 연령에 따라 청년, 중년, 노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복의 치마길이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긴치마가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활동에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이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무릎 위까지 오는 미니스커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복의 현대화를 매우 중요한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생활에 편리한 한복을 발전시키는 것을 창작의 목표로 삼으며, 옛날 그대로의 의복을 입으려는 전통주의와 서구의 자유분방한 복식을 경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한복에 대한 관심은 2001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최초의 한복패션쇼(조선옷전시회)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의류디자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치수 입력으로 완성되는 패턴디자인, 그레이딩에서 세부적인 선이나 길이 수정, 검사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산화된 의류디자인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용 프로그램개발은 평양 피복연구소뿐 아니라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의 프로그램연구실, 조선 컴퓨터센터, 평양 프로그램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IV.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전망

### 1.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향후 의류위탁가공교역을 비롯한 남북교역의 활성화

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물류비의 절감, 직교역 기반구축,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적인 북한의 인프라 확충: 전력부족과 통신 시설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여 향후 평양을 남북한 의류산업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한다<sup>4)</sup>.

② 인천-남포간 항로 안정화: 국제 시세보다 2-3배 가량 비싼 인천-남포 항로의 물류비를 인하하고 해운합의서를 체결한다.

③ 육상운송 모색: 다양한 운송루트 확보를 위해 해운항로 뿐 아니라 경비나 납기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육로운송을 모색한다. 개성관광특구나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통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류의 육로 운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부자재의 세트화: 원부자재 북한조달에 따르는 비용절감을 위해 부자재 산업의 공동발달을 도모한다. 소소한 자재부터 위탁가공에 이르는 설비까지 북한 내에서 세트화하여 최종에는 물류이동비만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⑤ 적극적인 기술지도 방법 개발: 숙련된 한족 및 조선족을 북한현지에 파견하거나 북측 인력을 중국에서 교육시키고 작업 지시서 및 작업내용관련 VTR를 송부, 활용토록 하는 등 생산관리와 기술지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측 기술인력의 직접 파견과 북측 기술인력과 의 기술지도를 위한 상호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⑥ 남북한 중립지역에 교역소 설치: 향후 비용절감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중개상을 통한 무역이 아닌 직접 무역이 가능하도록 남북한 중립지역에 교역소를 설치함으로써 제한적인 직접교류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상호합의하에 물류창고를 설립하고 남북경협 전용통신망을 개설하여 통신을 허용하도록 한다.

⑦ 정부의 자금지원: 북한의 기초설비는 1980년대 조총련계의 합영 투자로 제대로 갖추어져 초기 위탁가공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위탁가공사업의 확대로 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의류위탁가공 확대에 대비하여 북한 내 노후화된 설비 교체 및 설비제공에 대해 정책적으로 자금

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 2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전망

북한은 자체 의류산업 역량 강화와 경제난 타개, 지속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해 대외적 교류 확대 추진과 함께 자국내 우수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외화 획득까지 가능한 의류위탁가공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우수한 저임금 노동시장, 설비전이가 용이한 지리적 근접성, 무관세의 분리된 시장특성 등이 우리 기업들에게 구조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국제자유경제지대의 경쟁력 있는 남한전용 공단으로 조성된다면, 물류비 절감과 인프라 구축 효과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류부문의 남북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이 확대될 경우 분야별로는 각종 직물 및 편물, 봉제, 의류 등이 단기적으로 유망하다. 의류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아동복과 중저가 브랜드로 차별화하고, 봉제에서 시작하여 점차 방직과 방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 확대를 통해 북한 노동력의 기술이 축적되면, 고급 남성복과 여성복으로까지 그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염색 가공의 경우, 직물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단기에는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V. 맺음말

이상 북한의 의류 산업과 의생활문화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은 중앙계획에 의한 복지 및 의류의 생산량, 종류, 질에 대한 결정과 엄격한 배급제(구매기회 부여)로 인해 단순화, 규격화되었다. 최근의 의생활변화는 1970-80년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 국제적인 행사개최에 따른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의복에 대한 개방정책과 캠페인, 그리고 1990년대 서구문물을 접한 특권층들이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션을 소개, 유행을 선도함으로써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공식 행사 동원시 여성은 한복(일명 조선옷), 남성은 신사복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모두 양복(여성의 양장을 포함)을 착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하고 한복을 입지 않는다. 북한의 여성들은 외출시 비교적 다양한 디자인과 밝은 색상의 원피스, 투피스, 블라우스, 스웨터 등을 착용하며, 남성들은 평상시 작업복이나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티셔츠나 바지, 점퍼를 입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검색 교복을 항시 착용, 규율에 맞춰 엄격한 학교생활을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서구 유행을 쉽게 수용하여 청바지, 치마바지, 영문인 인쇄된 티셔츠 등 북한당국이 금지하는 패션이 그들 사이에 유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결혼식 때 신부예복으로 분홍색의 치마 저고리를 선호하고, 신랑은 검은색 양복을 착용하는 것이 오늘날 남한과 다르다. 회갑, 돌 등의 생일과 설, 추석 등의 명절에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한복과 양복의 맞춤이 일반적인 북한에서의 의류관련 인재육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평양미술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과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 의류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한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피복전문학교가 각 도 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의류디자인 연구기관으로는 1988년 평양과 각 시, 도에 설치된 피복연구소가 있으며, 양복·한복의 디자인, 가공공업화계획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의류전공 대학졸업자들은 각 도내의 피복연구소나 의류공장에 배치되어 단체,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아 의복디자인과 패턴제작,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어 북한에서 매우 선호되는 전공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해외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한 북한의 의류산업은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그 수준은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

북교역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위탁가공교역 중 반입되는 물품의 대부분을 의류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내국간 과세 면제와 북한의 우수한 품질과 노동력을 비교적 적은 생산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제일모직, 서전어패럴, 한일합섬, 이랜드 등의 의류회사가 대북한 의류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교역형 위탁가공무역에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역품목은 남성용 중저가 의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고급패션에 대한 인식 및 표현능력 부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과의 거래형태는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이 대부분이며, 임가공비 결정▶샘플제작과 계약체결▶원부자재 반출과 본작업▶완제품 반입 및 결제의 거래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전력부족과 통신시설 미비 등의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와 중국에 비해 다소 비싼 임가공료, 납기지연, 인천~남포 항로의 불안정성이 과다한 물류비 발생요인이 되며, 직접적인 의사소통, 현지방문 기술지도 불가능으로 품질, 생산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남북한 정치 상황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 대금결제 시스템 부재 등이 남북교역 확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확충, 항로의 안정화, 육상운송 모색 등을 통한 물류비의 절감과, 남북한 중립 지역에 교역소 설치, 직접적인 기술 지도 방법 개발로 직교역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패션 의류 산업과 같이 정치와 무관한 부문에서라도 쌍방의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남북간의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만 의류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력이 가변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 향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남북한 문헌을 포함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 고조로 증대되는 매스컴 자료와 일반 의류문헌,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의 연구원이 제공하는 북한정보 등을 참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북한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조사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홍보성 보도와 사진 자료들에 많이 의존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북한이 제공하는 의생활 보도 자료에 대한 실증적 증거 확인이 불가능했다.



### 참고문헌

- 1) 한국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이 사장 광선희 목사)과 재미교포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이 북한 교육성의 허가를 받아 김 총장이 이 대학의 설립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2) 남한의 디자이너 이영희(李英姬·65)씨의 작품 1백 여점을 선보인 '조선 옷 전시회'라는 이름의 최초의 남북합작 패션쇼가 2001년 6월 4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 마담 휘가로, 웅진닷컴, 2001. 7.
- 3) 조규화 외, 통일을 대비한 연변 조선족 가정생활 기초조사, 대한발전전략연구원, 2000.
- 4) "...오늘 남자들은 조선옷을 예술작품을 형상화 하는데서 필요할 때에만 입을 뿐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주로 명절옷, 레식복과 무대복으로 많이 리용하고 있으며 평상복으로도 입고 있다. 이런 데로부터 오늘 조선옷차림이라고 하면 주로 여자옷차림과 어린이 명절옷차림을 넘두에 두고 말하는 것으로 된다."
 

천석근,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 2: 옷과 옷차림,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1, p. 194.
- 5) 재봉기는 귀중한 재산이자 생계도구로 이용되어 일부 가정에서는 재봉기를 2-3대 갖추어 놓고 옷을 만들어 장사꾼에게 납품하거나 장마당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하는데 옷장사로 돈을 많이 번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남성 점퍼 800-850원, 남성바지 600-650원, 여성점퍼 450-500원, 여성동복은 1800-3000원(노동자 평균 월급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6) 평양은 대동강을 경계로 서평양과 동평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서평양에는 갖가지 문화시설과 김정일 집무실, 정부청사, 고급아파트 등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다. 서평양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 창광거리로 이곳의 주민은 대부분 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간부들이다. 이들 특권층 자녀들은 외제 자동차를 몰고, 수입 명품으로 치장하며 특별대우를 받는다.
- 7) 탈북자 증언.
- 8) 이찬삼, 평양특파원, 중앙일보사, 1991, p. 150.
- 9) 탈북자 증언.
- 10) 연합뉴스, 2001년 4월 18일.
 

[www.yonhapnews.co.kr/news/20010418/2217010000200104181649390.html](http://www.yonhapnews.co.kr/news/20010418/2217010000200104181649390.html)
- 11) 스카프 형태이며 소녀단원 넥타이의 준말.
- 12) 탈북자 증언.
- 13) 내외통신 1133호, 1998년 10월 29일.
- 14) 앞 글.
- 15) [www.koreascope.org/sub/2/ks2-4.html](http://www.koreascope.org/sub/2/ks2-4.html)
- 16) 천석근, p. 229.
- 17) 2000년 6월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북 영변과 박천의 견직공장은 북한 최고의 비단생산지로 영변의 견직공장에서는 평북의주와 평양제사공장의 명주실,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인견실을 기본재료로 하여 뉴똥, 다색단, 약산단, 구룡단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급 견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6월 28일.
- 18) 권영경 외, 북한이해, 통일부, 2000, p. 464.
- 19) 조선일보 NK리포트, 2001년 6월 25일.
- 20) 천석근, p. 230.
- 21) 북한의 명절은 9대 국가명절과 4대 민족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대 국가명절은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4), 정권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에 맞춰 지정되어 있고, 4대 민족 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해 한식, 단오, 추석 등 우리 전래의 민속절로 하고 있다.
- 22) 연합뉴스, 2000년 3월 20일.
- 23) 손봉숙,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 1993, p. 47.
- 24) 탈북자 증언.
- 25)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1,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 26) 전양진, '북한의 섬유제품 무역현황', 북한연구 창간호, 명지대 북한연구소, 1998, pp. 215-227.
- 27) 화학섬유 등 원료부문과 방직 부문이 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생사 및 견직물 등 견방직 제품은 비교적 품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28) 김명식 외, 북한의 산업, 한국산업은행, 2000, p. 389.
- 29) 앞 글, pp. 398-403.
- 30) 조선일보 NK리포트, 2001년 6월 25일.
- 31) 3가지 형태의 경제교류가 있는데,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대북투자사업)이 있다. 이 중 위탁가공교역은 단기간 내에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로서 의류산업의 특성에 잘 맞아 남북경제협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32) '위탁가공교역'이란 임가공 교역이라고도 하는데 남한기업이 북한기업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형태로 단순위탁가공교역, 설비임대방식, 설비제공방식으로 세분화된다.
- 33)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1, pp. 30-31.
- 34) 북한의 학교교육은 크게 의무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으로 나뉘며, 고등교육기관은 다시 일반 고등교육기관(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과 성인고등교육기관(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고등교육기관에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 특수대학이 있고,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일반대학 야간부, 방송통신대학 등이 있다.
- 35) 북한 의상미술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리유미(1949년생)는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 의상미술 강좌장(학과책임교수)으로서 이 대학 졸업 후 동대학 교원으로 30여 년 동안 민족의 상 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훈예술가 칭호와 부교수 학직을 받았으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 36) 북한에서 학위는 박사과 학사(석사), 학직은 교수와 부교수로 나뉜다. 박사학위가 수여되는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박사원(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해 심사에 통과함으로써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와 저작을 발표해 학문적 업적을 인정, 학위를 받는 경우이다. 의류관련전공의 경우 후자에 해당, 박사학위가 수여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는 대학의 학부과정을 마치고 박사원의 학사반을 3년 또는 3년 6개월 이수한 후 학위시험과 논문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 37)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저,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 2001, p. 79.
- 38) [www.koreascope.org/sub/2/ks2-4.html](http://www.koreascope.org/sub/2/ks2-4.html)
- 39) 유영구, '다양한 패션, 개방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북한, 1991년 8월호, p. 82.
- 4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북한연구소, 1994, p. 576.
- 41) 유영구, pp. 81-83.
- 4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 5월 27일 발표한 보고서 '통일한국 남북한 산업지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회 간접자본(SOC)이 가장 잘 구축돼 있는 평양지역에는 섬유, 신발 등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